

(<sub>1</sub>Ê) = (〈어휘성 · 主觀적〉 피지시사) = “알/모르-”

(<sub>2</sub>Ê) = (〈어휘성 · 非主觀적〉 피지시사) = “먹/가-”...

2-2-1) <sub>1</sub>C: “<sub>1</sub>U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S·<sub>1</sub>S→<sub>1</sub>S·<sub>2</sub>S)-(<sub>2</sub>l)→<sub>2</sub>U”

1 2-2-1) <sub>1</sub>C: “<sub>1</sub>tu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je·<sub>1</sub>je→<sub>1</sub>je·<sub>2</sub>je)-(<sub>2</sub>l)→<sub>2</sub>je”

tu = (主觀적 目的語形) 지시사 = (이/그/저)것

je = (非主觀적 目的語形) 지시사 = (이/그/저)말, 사람...

(<sub>1</sub>je) = (〈主觀連結 · 時制形〉 피지시사) = “-겠(다)/-고있(다)/-았(었)(다)/-(φ)-~-ㄴ  
-~-는(다)”...

(<sub>2</sub>je) = (〈非主觀連結 · 時制形〉 피지시사) = “-겠(다)/-고있(다)/-았(었)(다)/-(φ)-~-ㄴ  
-~-는(다)”...

{ 2-2-2) <sub>2</sub>C: “<sub>2</sub>U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S·<sub>2</sub>S→<sub>2</sub>S·<sub>1</sub>S)-(<sub>1</sub>l)→<sub>1</sub>U”

{ 2-2-2) <sub>2</sub>C: “<sub>2</sub>je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je·<sub>2</sub>je→<sub>2</sub>je·<sub>1</sub>je)-(<sub>1</sub>l)→<sub>1</sub>tu”

je = (主觀連結語尾形) 지시사 = “-고-/-게-/-아(어)-/-(φ)ㄴ-

tu = (非主觀連結語尾形) 지시사 = “-고-/-게-/-아(어)-/-(φ)ㄴ-

(<sub>1</sub>je) = (〈主觀時制語尾形〉 피지시사) = “-ㄴ-/-았-/--(φ)ㄴ-

(<sub>2</sub>je) = (〈非主觀時制語尾形〉 피지시사) = “-ㄴ-/-았-/--(φ)ㄴ-

<sub>2</sub>連續(<sub>2</sub>C)의 同形

(= <sub>2</sub>內部的/外部的/不連續 1度(<sub>1</sub>D)의 同形)

同形的 順序

(2) F ← M: (2)

[ #  
(=不在의 連續)

{ 1) D: “<sub>2</sub>U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S→<sub>2</sub>S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
{ 1) D: “<sub>2</sub>Vd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Ê→<sub>2</sub>Ê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
Vd = (連結적) 지시사 = (먹)고(말다)/(먹)어(버리다)/(먹)게(하/되다)/(먹)지(아니  
하다)<sup>3)</sup>

# = (連結的) 지시사 = (먹)고(싶다)/(먹)어(보았다)/(섭섭하)게(도)(못)간다/(먹)  
지(못)한다<sup>3)</sup>.

Ê = (〈非主觀助動形〉 피지시사) = “말”(다)/“버리”(다)/“하/되”(다)/“아니하”(다).

# = (〈主觀助動形〉 피지시사) = “싶”(다)/“보았”(다)/“못가”(ㄴ다)/“못하”(ㄴ다).

{ 2-1) <sub>1</sub>C: “<sub>2</sub>U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S→<sub>2</sub>S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
{ 2-1) <sub>1</sub>C: “<sub>2</sub>Axé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f→<sub>2</sub>f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
Axé = (連結 · 助動形) 지시사 = (먹)고말(다)/(먹)어버리(다)/(먹)게하/되(다)/(먹)지  
아니하(다).

# = (〈連結 · 助動形〉 지시사) = (먹)고싶(다)/(먹)어보았(다)/(섭섭하)게(도)못하(ㄴ  
다)/(먹)지 못하(ㄴ다)<sup>4)</sup>.

f=(〈非主觀·本動形〉피지시사)="먹"

#=(〈主觀·本動形〉피지시사)="먹", "섭섭하".

- { 2-2) <sub>2</sub>C: "<sub>1</sub>U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S→<sub>1</sub>S·<sub>2</sub>#)-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"
- { 2-2) <sub>2</sub>C: "<sub>1</sub>Ax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f→<sub>1</sub>f·<sub>2</sub>#)-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"

Ax=(主觀·連結助動形)지시사=(먹)고 싶<다>/<먹>어 보았<다>/<섭섭하>게(도)못 하<ㄴ다>/<먹>지 못하<ㄴ다>

#=(非主觀連結·助動形)지시사=(먹)고 말<다>/<먹>어 버리<다>/<먹>게 하되/<다><먹>지 아니하<다>.

(f)=(〈主觀·本動形〉피지시사)=(먹), (섭섭하)

(#)=(〈非主觀本動形〉피지시사)=(먹)

不連續(D)의 同形

(=外部的/不連續 2度(<sub>2</sub>D)의 同形)

同形の 順序:

(3) F → M: (3)

[ #  
(=不在의 連續)

- { 1-1) <sub>1</sub>C: "<sub>1</sub>U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S→<sub>1</sub>S·<sub>2</sub>#)-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"
- { 1-1) <sub>1</sub>C: "<sub>1</sub>l/2 pers.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Vs→<sub>1</sub>Vs·<sub>2</sub>#)-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"

1. 2 pers.=지시사=(종결어미형 지시사)=(저리 가)게 !/(가 ㅂ)니까? ...<sup>4)</sup>

#=지시사=(연결어미형 지시사)=(밥좀 먹)게 (조용해)라 !/내가 아까보)니까(그사람 가더)라.<sup>4)</sup>

(Vs)=(어휘성·종결적)피지시사=(가), (가 ㅂ)...

(#)=(어휘성·연결적)피지시사=(먹), (보)...

- { 1-2) <sub>2</sub>C: "<sub>2</sub>U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S→<sub>2</sub>S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"
- { 1-2) <sub>2</sub>C: "<sub>2</sub>3e pers.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Vd→<sub>2</sub>Vd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"

<sub>2</sub>3° pers.=지시사=(연결어미형 지시사)=(밥좀 먹)게 (조용해)라 !/(내가 아까보)니까(그 사람 가더)라...

#=(지시사)=(종결어미형 지시사)=(저리 가)게 !/(가 ㅂ)니까? ...

(Vd)=(어휘성·연결적)피지시사=(먹), (보)...

(#)=(어휘성·종결적)피지시사=(가), (가 ㅂ)...

- { 2) D: "<sub>1</sub>U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S→<sub>1</sub>S·<sub>2</sub>#)-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"
- { 2) D: "<sub>1</sub>pers.act.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Vact.→<sub>1</sub>Vact·<sub>2</sub>#)→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"

<sub>1</sub>pers. act.=(종결어미형)지시사=(조용해)라 !/(가더)라...등, "종결어미"형 지시사.

#=(연결어미형)지시사=(-먹)게-/(보)니까, ...등, "-아/-게/-지/-고"형 "연결어미"형 지시사



(<sub>2</sub>je)=(어휘성)피지시사<sub>1</sub> =“어느”, “새”, “몇”, 등등.  
 (1je)=(어휘성)피지시사<sub>1</sub>

**<sub>2</sub>連續(<sub>2</sub>C)의 同形**

(=<sub>2</sub>内部的/外部的/不連續 1度(<sub>1</sub>D)의 同形)

同形의 順序

(2) **F ← M:** (2)

- [ #  
 (=不在의 連續)
- { 1) D: “<sub>2</sub>U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S→<sub>2</sub>S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- 1) D: “<sub>2</sub>Vd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Ê→<sub>2</sub>Ê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
Vd=(연결적·불완전명사형)지시사=(어느)것/(무)엇/(누)구, 등.

#=(종결적·불완전관형형)지시사=(어)느<sup>9)</sup>/(무)슨/(어)떤/(이·그·저)런, 등.

(Ê)=연결적·1/2인칭 대명사·주/목적격형 피지시사:(나/너; -에(께)서; -이(가)/-을(를); (잠수)시-(주격형 존재접사); (떡)이(다)(사역형 접사); (가더/가느)ㄴ(야)?/(떡)느ㄴ<sup>10)</sup>(야?/다)(의문·대답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); (나)는<sup>11)</sup>/(떡)은/(나)를/(떡)을(명사/대명사형 특수조사), 등등; (가)ㄴ다/(가)더(ㄴ아)(직접/간접법적 종결/연결어미); (우리/사람)들(대명사/명사형복수접사).

(#)=종결적·3인칭 대명사·여격·특수조사형 피지시사:그; -에게(께); -이(가)/-을(를)/-도/-는/-만; (드리)+φ/(가)ㄴ-(목적격형 존재접사); (떡)히(다)(피동형 접사); (가)더ㄴ(아)/(떡)어ㄴ(아)<sup>12)</sup>(대답·명령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); (고)있/(떡)는/(떡)은/(하)ㄴ/(떡)을/(하)ㄴ(관형형 특수조사), 등등; (가)더(ㄴ이아?)/(가)더ㄴ(아)(동사형 복수 접사)<sup>13)</sup>; (빨리)들/(가)들(자거라)(부사형 복수 접사).

- 2-1) <sub>1</sub>C: “<sub>2</sub>U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S→<sub>2</sub>S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- 2-1) <sub>1</sub>C: “<sub>2</sub>Axé-(<sub>2</sub>l)→(<sub>1</sub>#·<sub>2</sub>f→<sub>2</sub>f·<sub>1</sub>#)-(<sub>1</sub>#)→<sub>1</sub>#”

Axé=(관형형)지시사=“-ㄴ”

#=(명사형)지시사=“-것”

(f)=(관형형)피지시사=“떡”(는), 등등.

(#)=(명사형)피지시사=“떡”(는 것)

- { 2-2) <sub>2</sub>C: “<sub>1</sub>U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S→<sub>1</sub>S·<sub>2</sub>#)-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”
- 2-2) <sub>2</sub>C: “<sub>1</sub>Ax-(<sub>1</sub>l)→(<sub>2</sub>#·<sub>1</sub>f→<sub>1</sub>f·<sub>2</sub>#)-(<sub>2</sub>#)→<sub>2</sub>#”

Ax=(명사형)지시사=“-것”<sup>14)</sup>

#=(관형형)지시사=“-ㄴ”

(f)=(명사성/주관성/동·형용사형)피지시사=“떡”(는 것), 등등.

(#)=(관형형/기술성/동·형용사형)피지시사

不連續(D)의 同形  
 (=外部的/不連續 2度(2D)의 同形)  
 同形的 順序

(3) F → M: (3)

[ # (不在的 連續)

- { 1-1)  ${}_1C$ : “ ${}_1U - ({}_1l) \rightarrow ({}_2\# \cdot {}_1S \rightarrow {}_1S \cdot {}_2\#) - ({}_2\#) \rightarrow {}_2\#$ ”
- { 1-1)  ${}_1C$ : “ ${}_11/2 \text{ pers.} - ({}_1l) \rightarrow ({}_2\# \cdot {}_1V_s \rightarrow {}_1V_s \cdot {}_2\#) - ({}_2\#) \rightarrow {}_2\#$ ”

1/2 pers. = (자동형 / 1·2인칭형 · 주관동사형) 지시사 = “나/너”  
 (그 사람 좋/싫) (다/으나)  
 # = (타동형 / 3인칭형 · 기술동사형) 지시사 = “그 사람”  
 (키 크/작) (다)

(Vs) = (위 자동 · 주관형) 피지시사 = “그 사람 좋/싫”  
 # = (위 타동 · 기술형) 피지시사 = “키 크/작”

- { 2-1)  ${}_2C$ : “ ${}_2U - ({}_2l) \rightarrow ({}_1\# \cdot {}_2S \rightarrow {}_2S \cdot {}_1\#) - ({}_1\#) \rightarrow {}_1\#$ ”
- { 2-1)  ${}_2C$ : “ ${}_23e \text{ pers.} - ({}_2l) \rightarrow ({}_1\# \cdot {}_2V_d \rightarrow {}_2V_d \cdot {}_1\#) - ({}_1\#) \rightarrow {}_1\#$ ”

3° pers. = (타동형 / 3인칭형 · 기술동사형) 지시사 = “그 사람” (키 크/작) (다)  
 # = (자동형 / 1·2인칭형 · 주관동사형) 지시사 = “그 사람” (좋/싫) (다)  
 (Vd) = (위 자동 · 1/2인칭형) 피지시사 = “키 크/작”  
 (#) = (위 타동 · 3인칭형) 피지시사 = “그 사람 좋/싫”

- { 2-2) D: “ ${}_1U - ({}_1l) \rightarrow ({}_2\# \cdot {}_1S \rightarrow {}_1S \cdot {}_2\#) - ({}_2\#) \rightarrow {}_2\#$ ”
- { 2-2) D: “ ${}_1\text{pers. act.} - ({}_1l) \rightarrow ({}_2\# \cdot {}_1V_{act.} \rightarrow {}_1V_{act.} \cdot {}_2\#) - ({}_2\#) \rightarrow {}_2\#$ ”

pers. act. = (1·2인칭형 · 주관동사형) 지시사 = “나/너 그 사람”<sup>15)</sup> (좋/싫) (더라/더냐)  
 # = (3인칭형 · 기술동사형) 지시사 = “그 사람 키” 크/작(더라)  
 (Vact.) = (위 1·2인칭형 · 주관동사형) 피지시사 = “좋/싫더르(들)”  
 (#) = (위 3인칭형 · 기술동사형) 피지시사 = “크/작더르(들)”

佛語의 “명사화(연결화/종결화)”의 同形 — :

佛語의 명사화(연결화/종결화)에 대한 Guillaume의 心理/精神力學論에 바탕을 둔 “구체적 假言語/言語表現” (\*앞 p. 125 참조)의 측면에서의 연구는 주로 그의 제자 Gérard Moignet 에 의해서 연구되었다. 그러므로 Moignet의 명사화(연결화/종결화)에 대한 연구(Études de psycho-systématique française, Édition Klincksieck, Paris, 1974) 가운데서 접속사(conjonction)와 부사(adverbe)에 관한 연구를 뽑아서,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검토 내지 정리하고, 이어서 현대 韓語의 그에 대응되는 예들을 대비시킨다. 즉 :

佛語에서의 정리 — :

1) 부사와 접속사에서 각각 다루어진 사실들을, Guillaume의 병치적 단계 즉 “구체적(假

言語/言語表現적) 同形적 조직” 안에서 어떠한 위치(position)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: 즉 그 사실들을: (1) 순서(1)로서의 M(의미)=F(형태) 단계, (2) 순서(2)로서의 F(형태)=M(의미) 단계, 그리고 (3) 순서(3)으로서의 M(의미)=F(형태)로 정리한다. 이어서

### 韓語에서의 정리—:

위에서 그 위치가 정리된 佛語에 대응하는 韓語의 예들을, 앞에서 이미 韓語에 관하여 정립된 바 있는 韓語의 “잠재적(분석적/연속적) 동형적 조직” 전체를 참고로 하여, “구체적(비분석적/불연속적) 同形적 조직” ‘전체’ 안에서는 ‘정확히’ 어떠한 ‘위치’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佛語의 경우에서 정리된 바에 대응하는 韓語의 예들을: 1) 순서(1)로서의 M(의미)=F(형태) 단계 (\*주의: “=”: “混同/착각” 표시. 따라서 F=M으로表記 가능함)에 해당하는 佛語의 예에 대응되는 韓語의 예. 2) 순서(2)로서의 F(형태)=M(의미) 단계에 해당하는 佛語의 예에 대응되는 韓語의 예. 그리고 3) 순서(3)으로서의 M(의미)=F(형태) 단계에 해당하는 佛語의 예에 대응되는 韓語의 예, 로 정리한다.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이 “구체적(假言語/言語表現적) 同形적 조직” 안에서의 큰 위치가 정해진 佛語와 韓語의 명사화(연결화/종결화)의 예들을, 이미 앞에서 韓語에 대하여 정립된 韓語의 ‘잠재적(분석적/연속적) 同形적 조직’ ‘전체’를 참고로 하여, “구체적(비분석적/불연속적) 同形적 조직” ‘전체’ 안에서는 ‘정확히’ 어떠한 ‘위치’를 차지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다(\*앞 p.132의 “一般形態論과 意味・統辭論의 관계”項 참조).

이것은 곧 이와 같이 ‘구체적’ 단계 ‘전체’에서 ‘정확한 위치’가 정해진 佛語의 예들이, ‘잠재적’ 단계 ‘전체’에서의 ‘정확한 위치’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된다.

### 佛語의 부사와 형용사의 부사화의 예와 그 정리—:

위 표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Moignet는 1) 형용사; 2) 형용사의 부사화; 3) 부사로 분류하여 M(의미)과 F(형태)의 同形을 설명한다. 즉:

(1) M(형용사)와 F(명사)의 同形: Pierre(F) écoute attentif(M) <P.는 주의 깊게 듣는다>: 이것은 곧 F(Pierre<écoute>)=M(attentif)라고 요약될 수 있다. 즉 연속(1)적 同形이다 (\*이때 F는 연속(1)적/기본(1)(cardinal 1)적 3인칭의 연결어미적 구문(종속절)으로, M도 역시 연속(1)적/기본(1)적 3인칭의 종결어미적 구문(주절)으로 바꿔 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(2) M(부사화된 형용사)와 F(명사와 동사의 同形) Pierre écoute(F) attentivement(M) <P.는 주의 깊게 듣는다>:

이것은 곧 F(Pierre écoute)=M(attentivement)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. 즉 연속(2)적 F와 M의 同形이다(\*이때 F는 연속(2)적/기본(2)적 3인칭의 종결어미적 구문(주절)으로, M도 역시 기본(2)적 3인칭의 연결어미적 구문(주절)으로 바꿔 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(3) M(부사화된 형용사)와 F(동사)의 同形 :

Pierre attend vainement<P.는 헛되히 기다린다> :

이것은 곧  $F(\text{Pierre attend})=M(\text{vainement})$ 와 같이 포기될 수 있다. 즉 F와 M의 불연속적 同形이다(\*이때 F는 불연속적/서열적(ordinal) 3인칭의 연결어미적 구문(증속절)으로, M도 역시 불연속적/서열적 3인칭의 종결어미적 구문(주절)으로,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\*위의 종합설명: 위 (1)의 “F=M”은 결국 그것의 “불연속”으로서의 “(3)”의 F(종결적 동사: ...attend/종결어미: ... $\phi$ )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 $M(\text{연결적 형용사: ...vain.../연결어미: ...ment...})$ 과의 “연속(1)적” 同形이고: “ ${}_1F(\text{종결적지시사: ...attend})={}_1M(\text{종결어미적 피지시사...}\phi)$ ” $\xrightarrow{1\rightarrow 2}$  “ ${}_2F(\text{연결적 지시사: ...vain...})={}_2M(\text{연결어미적 피지시사: ...ment...})$ ”, (2)

의 “F=M”는 결국 그것의 “불연속”으로서의 “(2)”의 F(연결적 형용사: ...attentive.../연결어미...ment...)의 테두리안에서의 그것과  $M(\text{종결적 동사: ...écoute/종결어미: ...}\phi)$ 와의 연속(2)적(위 <1>과는 “異(逆) 方向적” 同形이고: “ ${}_1F(\text{연결적 지시사: ...attentive...})={}_1M(\text{연결어미적 피지시사: ...ment...})$ ” $\xleftarrow{1\leftarrow 2}$  “ ${}_2F(\text{종결적 지시사: ...écoute})={}_2M(\text{종결어미적 피지시사: ...}\phi)$ ”, (3)의 “F=M”은 결국 그것의 “불연속”으로서의 (1)의 F(종결적 동사: ...écoute/종결어미: ... $\phi$ )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 $M(\text{연결적 형용사: ...attentif.../연결어미...}\phi...)$ 과의 “불연속적”(위 “1” 및 “2”와는)異(逆)方向적 同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: “ ${}_1F(\text{종결적 지시사: ...écoute})={}_1M(\text{종결어미형 피지시사: ...}\phi)$ ” $\xrightarrow{1\rightarrow 2}$  “ ${}_2F(\text{연결적 지시사: ...attentif...})={}_2M(\text{연결어미형 피지시사: ...}\phi...)$ ”.

위 (1), (2), (3)의 “설명”에서 각각 모두 “F(동사/형용사)의 테두리 안에서...”란 말을 사용했는데, 그것은 “大體系”안에서의 “小體系”(\*앞 pp. 127-128 참조)<sup>6)</sup> 각각에서의 “F”를 뜻하고, “大體系”<sup>6)</sup>에 있어서는 연속(1)과 연속(2)를 “하나로” 보았을 때의 연속(1)적 同形

6) \* “잠재단계의 小體系”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:

(1)  ${}_1F \rightarrow {}_1M$ : “ ${}_1F$ ”과 “ ${}_1M$ ”을 “하나로” 보았을 때의  ${}_1$ 잠재적/ ${}_1$ 연속적/內部적/展望적(↙↘ 또는 →) “ ${}_1F$ 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, 그와 (순서 1로서의) “外形이 同一한”, 즉 (“ ${}_1F$ ”과 “ ${}_1M$ ”을 “따로 따로” 보았을 때의  ${}_1F$  즉 (“하나”로서의 “ ${}_1F$ 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한”)  ${}_2$ 잠재적/ ${}_2$ 연속적/外部적/回顧적(↗ 또는 ←)  ${}_1M$ 과의  ${}_1$ 잠재적/ ${}_1$ 小體系적/ ${}_1$ 연속적/內部적/展望적(↙↘ 또는 →) 同形;

(2)  ${}_2F \rightarrow {}_2M$ : 위 “(1)”의 “同形”( ${}_1F \rightarrow {}_1M$ )을 “하나로 본”, 위 “(1)”과 그 “(순서 1로서의) 外形이 同一한”  ${}_1$ 잠재적/.../展望적(↙↘ 또는 →)  ${}_2F$ 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, “따로 따로 본 (1)” (즉 “ ${}_1M$ ”과는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”) (위 “(1)”과는) 異(逆)方向의  ${}_2$ 잠재적/.../回顧적(↗ 또는 →)  ${}_2M$ 와의  ${}_2$ 잠재적/ ${}_2$ 小體系적/ ${}_2$ 연속적/外部적/ ${}_2$ 展望적(↙↘ 또는 →) 同形,

(3)  ${}_1F \rightarrow {}_1M$ : 위 “(2)”의 “同形”( ${}_2F \rightarrow {}_2M$ )을 “하나로 본”, 즉 위 “(2)”와 그 “(순서 1로서의) 外形이 同一한”  ${}_1$ 잠재적/.../展望적(↙↘ 또는 →)  ${}_1F$ 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, “따로 따로 본 (2)” 즉 (“ ${}_2M$ ”와는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”) (위 “(2)”와는) 異(逆)方向의  ${}_2$ 잠재적/.../回顧적(↗ 또는 ←)  ${}_1M$ 과의  ${}_3$ 잠재적/ ${}_3$ 小體系적/不連續적/並置적/ ${}_2$  外部적 回顧적(↗ 또는 →) 同形.

즉:  ${}_1F \equiv {}_1M \xrightarrow[1 \rightarrow 2]{(1)} {}_2F \equiv {}_2M$ 와 그 “外形은 同一”하나, 그 “實質 내용”은 “同一하지 않은”,

즉 전망적(↙↘)/연속적 연속(1)과 “異(逆)方向적/회고적” “불연속적”(병치적) (↗↖) 同形

\* “잠재단계의 大體系”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:

위 “小體系” “(1)” ( ${}_1F \leftrightarrow {}_1M$ )과 “(2)” ( ${}_2F \leftrightarrow {}_2M$ )를 “하나로” 보았을 때의  ${}_1$ 잠재적/ ${}_1$ 大體系적/ ${}_1$ 連續적/內部적/展望적(↙↘) 또는 → (1) 즉:  ${}_1F \leftrightarrow {}_1M \xrightarrow[1 \rightarrow 2]{(1)} {}_2F \leftrightarrow {}_2M$ 의 테두리안에서의 그것과

그와 “(순서 1로서의) 外形이 同一한”, 즉 위 “(1)”과 “(2)”를 “따로 따로” 보았을 때의 (1)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(1)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한”  ${}_2$ 잠재적/ ${}_2$ 大體系적/連續적/外部적/回顧적(↗↖) 또는 ← (2):  ${}_1F \leftrightarrow {}_1M \xrightarrow[1 \rightarrow 2]{(1)} {}_2F \leftrightarrow {}_2M$ 와의 잠재적/大體系적/連續적/內部적/展望적(↙↘) 또는 →

同形.

\* “구체적 단계의 小體系”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.

(1) “ ${}_1M \equiv {}_1F$ ” · “잠재 단계”의 “(1)” 즉: “ ${}_1F \leftrightarrow {}_1M$ ”을 “하나로” 보았을 때의 ‘잠재적/연속적/內部적/展望적’(↙↘) 또는 → ‘ ${}_1F$ ’과 “(순서 1로서의) 外形이 同一한”, 즉 “(1)”의 “ ${}_1F$ ”과 “ ${}_1M$ ”을 “따로 따로” 보았을 때의  ${}_1F$ 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 ${}_1F$ 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/異(逆)方向적” “구체적 단계”의 ‘구체적/不連續적/外部적/回顧적’(↙↘) 또는 ← (1). “ ${}_1M \equiv {}_1F$ ”에서, “(1)”과 “ ${}_1M$ ”을 “하나로” 보았을 때의 “ ${}_1F$ ”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 ${}_1F$ 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한”  ${}_1$ 구체적/.../展望적(↙↘) 또는 → “ ${}_1M$ 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, “(1)”과 “ ${}_1M$ ”을 “따로 따로” 보았을 때의  ${}_1F$ 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 ${}_1M$ 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한”  ${}_2$ 구체적/.../回顧적(↗↖) 또는 ←  ${}_1F$ 과의 ‘구체적/ ${}_1$ 小體系적/ ${}_1$ 연속적/內部적/展望적’(↙↘) 또는 → 同形,

(2) “ ${}_2M \equiv {}_2F$ ”. 위 “(1)”의 “同形”( ${}_1F \leftrightarrow {}_1M$ )을 “하나로 본”, 위 “(1)”과 그 “(순서 1로서의) 外形이 同一한”  ${}_2F$ 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 ${}_2F$ ”와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한” ‘구체적/.../展望적’(↙↘) 또는 →  ${}_2M$ 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, “따로 따로 본 (1)” (즉 “ ${}_1F$ ”과는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”) (위 “(1)”과는) 異(逆)方向의 ‘구체적/.../回顧적’(↗↖) 또는 ←  ${}_2F$ 와의 ‘구체적/ ${}_2$ 小體系적/ ${}_2$ 연속적/ ${}_1$ 外部적/ ${}_2$ 展望적’(↙↘) 또는 ← 同形,

(3) “ ${}_2M \equiv {}_2F$ ”: 위 “(2)”의 “同形”( ${}_2M \equiv {}_2F$ )을 “하나로 본”, 즉 위 “(2)”와 그 “(순서 1로서의) 外形이 同一한”  ${}_1F$ 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 ${}_1F$ 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한” ‘구체적/.../展望적’(↙↘) 또는 →  ${}_1M$ 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, “따로 따로 본 (2)” 즉 “ ${}_2F$ ”와는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”) (위 “(2)”와는) 異(逆)方向의 ‘구체적/.../回顧적’(↗↖) 또는 ←  ${}_1F$ 과의 ‘구체적/ ${}_3$ 小體系적/不連續적/ ${}_2$ 外部적/回顧적’(↗↖) 또는 → 同形.

\* “구체적 단계의 大體系”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:

“잠재 단계의 大體系”의 “(1)”과 “(2)”를 “하나로” 보았을 때의 ‘잠재적/연속적/內部적/展望적’(↙↘) 또는 → “(1)” (\*위 “잠재적 단계의 大體系 (1)” 참조)과, 그와 “(순서 1로서의) 外形이 同一한”, 즉 “(1)”의 “(1)”과 “(1)”의 “(2)”를 “따로 따로” 보았을 때의 “(1)의 (1)”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(1)의 (1)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/異(逆)方向적” ‘구체적/不連續적/外部적/回顧적’(↗↖) 또는 → “구체적 단계의 大體系” (1): “ ${}_1M \equiv {}_1F \xrightarrow[1 \rightarrow 2]{(1)} {}_2M \equiv {}_2F$ ”에서, “(1)의 (1)”과 “(1)의 (2)”를 “하나로” 보았을 때의 “(1)의 (1)” 즉 “하나”로서의 “(1)의 (1)”과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한” ‘구체적/ ${}_1$ 大體系적/ ${}_1$ 連續적/內部적/展望적’(↙↘) 또는 → (1): “(위와 같은)”의 테두리



으로서의 “ ${}_1F={}_1M$ ”  $\Leftrightarrow$  “ ${}_2F={}_2M$ ”를 말한다.

$$\begin{array}{ccc} 1 & \xrightarrow{\quad} & 2 \\ (1) & & (2) \end{array}$$

韓語의 “연결어미구문”(종속적/피조동)과 “중결어미 구문”(주절/조동)의 佛語에 대응되는 “구체적” 단계와 “잠재적” 단계— :

1) 잠재적 단계 : “연결/중결”어미구문의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예로서는 “아/-게/-지/-고” 형 또는 “-니까”형등의 “연결어미” 형 지시사와 그에 붙는 피지시사 즉 형용사/동사(조용하-, 먹-, 보-, 등), 그리고 “-니까, -더라, -라” 등의 “중결어미”형 지시사와 그에 붙는 피지시사 즉 형용사/동사(먹-/조용하-)의 예를 들 수 있다. 이것을 위 佛語의 예 (1), (2), (3)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 (\*위 p.126 도표: “일반형태론(2)” 참조)

(1) F(연결/중결어미)와 M(동사/형용사)의 “연속적(형태적)” 同形: “(밥줄 먹)게(조용해)라! : “(내가 아까 보)니까(그사람 가더)라”.../“(저리 가)게! : “(가다)니까?”

\*註: 이것은 곧

$${}_1F(\text{연결어미형지시사: } \dots\text{게} \dots\langle\text{라}\rangle / \dots\text{니까} \dots\langle\text{라}\rangle) \leftrightarrow {}_1M(\text{피지시사: } \dots\text{먹} \dots / \dots\text{보} \dots) \Leftrightarrow {}_2F$$

(중결어미형지시사:  $\dots\text{게} / \dots\text{니까}$ )  $\leftrightarrow$   ${}_2M(\text{피지시사: } \dots\text{가} / \dots\text{가다})$ ”라고 요약될 수 있다. 즉 연속(1)적 同形이다(\*이때 左측의 “ ” 표시부분 즉 (1)은 연속(1)적/기본(1)적 3인칭의 “피조동적” 구문(종속절)으로, 右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2)도 역시 연속(1)적/기본(1)적 3인칭의 “조동적”구문(주절)으로 바뀌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(2) 위 (1)의 F와 M의 同形과 異(逆)方向의 同形:

$$*_註: “{}_1F(\text{연결어미형지시사: } \dots\text{게} \dots\langle\text{라}\rangle / \dots\text{니까} \dots\langle\text{라}\rangle) \leftrightarrow {}_1M(\text{피지시사: } \dots\text{먹} \dots / \dots\text{보} \dots) \Leftrightarrow$$

“ ${}_2F(\text{중결어미형지시사: } \dots\text{게} / \dots\text{니까}) \leftrightarrow {}_2M(\text{피지시사: } \dots\text{가} / \dots\text{가다})$ ”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. 즉 F와 M의 연속(2)적 同形이다(\*이때 左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1)은 연속(2)적 기본(2)적 3인칭의 “조동적” 구문(종속절)으로, 右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2)도 역시 연속(2)적 기본(2)적 3인칭의 “피조동”적 구문(주절)으로 바뀌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(3) F(중결/연결어미)와 M(동사/형용사)의 “불연속적(병치적/의미적)” 同形: 위 1)과 표기형태는 같음:

\*註: 이것은 곧 위 “(1)”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. 즉 F와 M의 “불연속적(병치적)” 同形이다(\*이때 左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1)은 불연속적/서열적 3인칭의 “피조동”적 구문(종속

리안에서의 그것과, “(1)의 (1)”과 “(1)의 (2)”를 “따로 따로” 보았을 때의 (1)의 (1) 즉 (“하나”로서의 “(1)”과 그 實質內容이 同一한”) ‘ ${}_2$ 구체적/ ${}_2$ 大體系적/ ${}_2$ 連續적/外部적/回顧적’ ( $\uparrow$  또는  $\leftarrow$ ) (2): “ ${}_1M={}_1F$ ”  $\Leftrightarrow$  “ ${}_2M={}_2F$ ”와의 ‘구체적/大體系적/連續적/內部적/展望적’ ( $\swarrow \searrow$  또는  $\rightarrow$ )

$$\begin{array}{ccc} 1 & \xleftarrow{\quad} & 2 \\ (1) & & (2) \end{array}$$

(2)

同形.

절)으로, 右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2)도 역시 불연속적/서열적 3인칭의 “조동적”구문(주절)으로 바뀌 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\*위의 종합설명: 위 (1)의 “(1) ↔ (2)”는 左 “(1)”의 테두리 안에서의, 그것과 (右)“(2)”와의 연속(1)적 同形이고, (2)의 “(1) ↔ (2)”는 “하나”로 본 위 (1)과 그 “外形이 同一한” (左)“(1)”의 테두리 안에서의, 그것과 “따로 따로” 본 위 (1) 즉 위 (右)“(2)”와는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(異/逆方向적)” (右)“(2)”와의 연속(2)적 同形이고, (3)의 “(1) ↔ (2)”는 “하나”로 본 위 (2)와 그 “外形이 同一한” (左)“(1)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“따로 따로” 본 위 (2) 즉 위 (右)“(2)”와는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(異逆方向적)” (右)“(2)”와의 불연속적/병치적 同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.

위 (1), (2), (3)의 “설명”에서 각각 모두 “(左)(1)의 테두리 안에서…”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“大體系” 안에서의 “小體系”(\*앞 pp. 127-128 참조) 각각에서의 (左)“(1)”을 뜻하고, “大體系”에 있어서는 연속(1)과 연속(2)를 “따로 따로”보았을 때의 “병치적” 불연속적 同形: “ ${}_1F \leftrightarrow {}_1M \rightleftharpoons {}_2F \leftrightarrow {}_2M$ ”와 그 “外形은 同一”하나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”,

즉 회고적/불연속적( $\bigwedge$ ) 同形과 異(逆)方向的 “연속(1)적” 同形: “ ${}_1F \leftrightarrow {}_1M \rightleftharpoons {}_2F \leftrightarrow {}_2M$ ”  

$$\begin{array}{ccc} \xrightarrow{1} & & \xleftarrow{1} \\ (1) & & (2) \end{array}$$

2) 구체적 단계: 이 단계는 앞에서 본 佛語의 “구체적 단계”에 대응시켜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. 이 단계는 곧 위 1) “잠재적 단계”의 (1), (2), (3) 각각을 모두 “불연속화” 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(“연속”의 “불연속화”에 대해서는 앞 p. 132 참조). :

(1) M(동사/형용사)과 F(종결/연결 어미)의 “연속적(형태적)” 同形: (저리 가)게 ! : (가) 님)니까? / (밥)줍)먹)게 (조용)해)라 ! : (내가 아)까)보)니까 (그)사)람)가)더)라 :

\*註: 이것은 곧

“ ${}_1M(\dots가/\dots가)님) = {}_1F(\dots)계/\dots)니까) \rightleftharpoons {}_2F(\dots)먹)\dots/\dots)보)\dots) = {}_2M(\dots)계)\dots/\dots)니까)\dots)라)”,$   

$$\begin{array}{ccc} \xrightarrow{1} & & \xleftarrow{1} \\ (1) & & (2) \end{array}$$

즉 “ ${}_1F(\text{종결적 지시사: *위 (1)의 2위치와 같음}) = {}_1M(\text{종결어미형 피지시사: *위 (1)의 1 위치와 같음}) \rightleftharpoons {}_2F(\text{연결적 지시사: *위 (2)의 1위치와 같음}) = {}_2M(\text{연결어미형 피지시사: *위 (2)의 2위치와 같음})$ ”라고 요약될 수 있다. 즉, 연속(1)적 同形이다(\*이때 F는 연속(1)적/기본(1)적 3인칭의 “조동적구문”(주절)으로, M도 역시 연속(1)적/기본(1)적 3인칭의 “피조동적” 구문(주절)으로 바뀌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(2) 위 (1)의 F와 M의 同形과 異(逆)方向的 同形:

\*註: “ ${}_1F(\text{연결적 지시사: *위와 같음}) = {}_1M(\text{연결어미형 피지시사: *위와 같음}) \rightleftharpoons {}_2F(\text{종} \dots)”,$   

$$\begin{array}{ccc} \xrightarrow{1} & & \xleftarrow{1} \\ (1) & & \end{array}$$

결적 지시사 : \*위와 같음) =  $\xrightarrow[1]{(2)}_2 M$ (종결어미형 피지시사 : \*위와 같음)와 같이 요약될 수 있

다. 즉 F와 M의 연속(2)적 同形이다(\*이때 F는 연속(2)적/기본(2)적 3인칭의 “피조동적” 구문(종속)으로, M도 역시 연속(2)적/기본(2)적 3인칭의 “조동적”구문(주절)으로 바뀌놓고 생각할 수 가 있다).

(3) \*앞 1) 잠재적 단계의 (1)을 “불연속화”시키거나 위 (2)를 “불연속화”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음(\*위 p. 132참조).

\*위의 종합설명 : 앞 “잠재적 단계”와 같은 방식으로, 위 (1) 및 (2)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.

佛語의 “연결어미 구문”(종속적/피조동)과 “종결어미 구문”(주절/조동)의, 韓語에 대응되는 “구체적 단계”와 “잠재적 단계”— :

1) 잠재적 단계 : 이 단계는 앞에서 정리한 佛語의 “구체적 假言語/言語表現단계”의 (1), (2), (3) 각각과 그에 대응되는 韓語의 “구체적 단계”의 (1), (2)(3) 각각을 모두 “연속화”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(\*앞 p.132 참조). 즉

(1) “Pierre écoute attentif”; M(동사/형용사)과 F(종결/연결 어미)의 同形 : (attentif) +  $\emptyset$  / (Pierre écoute) +  $\emptyset$  :

\*註 : 이것은 곧  $\xrightarrow[1]{(1)}_1 F$ (연결어미적 지시사 : ... $\phi$ ...)  $\leftrightarrow$   $\xrightarrow[1]{(1)}_1 M$ (연결적 피지시사 : ...attentif...)”  $\leftrightarrow$   $\xrightarrow[1]{(2)}_2 F$ (종결어미적 지시사 : ... $\phi$ )  $\leftrightarrow$   $\xrightarrow[1]{(2)}_2 M$ (종결적 피지시사 : ...écoute)”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.

즉 연속(1)적 同形이다(\*이때 左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1)은 연속(1)적/기본(1)적 3인칭의 “피조동적”(종속절)로, 右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2)도 역시 연속(1)적/기본(1)적 3인칭의 “조동적” 구문(주절)으로 바뀌 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).

(2) “Pierre écoute attentivement” : 위 (1)의 F와 M의 同形과 異(逆)方向의 同形 :

\*註 : “ $\xrightarrow[1]{(1)}_1 F$ (종결어미적 지시사 : ... $\emptyset$ )  $\leftrightarrow$   $\xrightarrow[1]{(1)}_1 M$ (종결적 피지시사 : ...écoute)”  $\leftrightarrow$  “ $\xrightarrow[1]{(1)}_2 F$ (연결어미적 지시사 : ...ment...)  $\leftrightarrow$   $\xrightarrow[1]{(1)}_2 M$ (연결적 피지시사 : ...attentive...)”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. 즉 F와 M의 연속(2)적 同形이다(\*이때 左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1)은 연속(2)적/기본(2)적 3인칭의 “조동적” 구문(주절)으로, 右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2)도 역시 연속(2)적/기본(2)적/기본(2)적 3인칭의 “피조동적”구문(종속절)으로, 바뀌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).

(3) “Pierre attend vainement” :

\*註 : 이것은 곧 위 (1)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: “ $\xrightarrow[1]{(1)}_1 F$ (연결어미적 지시사 : ...ment...)  $\leftrightarrow$   $\xrightarrow[1]{(1)}_1 M$ (연결적 피지시사 : ...vaine...)”  $\leftrightarrow$  “ $\xrightarrow[1]{(2)}_2 F$ (종결어미적 지시사 : ... $\phi$ )  $\leftrightarrow$   $\xrightarrow[1]{(2)}_2 M$ (종결적 피지시사 : ... )”

attend)” 즉 F와 M의 “불연속적(병치적)” 同形이다(\*이때 左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1)은 불연속적/서열적 3인칭의 “피조동적” 구문(중속절)으로, 右측의 “ ” 표시 부분 즉 (2)도 역시 불연속적/서열적 3인칭의 “조동적” 구문(주절)으로 바뀌놓고 생각할 수 있다).

\*위의 종합설명: 위 (1)의 “ $F \leftrightarrow M$ ”은 左측 “(1)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右측 “(2)”와의 異(逆)方向적 연속(1)적 同形이고, (2)의 “ $F \leftrightarrow M$ ”은 左측 “(1)”의 테두리 안에서의, 그것과 右측 “(2)”와의 “연속(2)적” 異(逆)方向적 同形이고, (3)의  $F \leftrightarrow M$ 은 左측 “(1)”의 테두리 안에서의, 그것과 右측 “(2)”와의 “불연속적” 異(逆)方向적 同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.

위 (1), (2), (3)의 “설명”에서 각각 모두 “左측(1)의 테두리 안에서…”란 말을 사용했는데, 그것은 “大體系”안에서의 “小體系”(\*앞 pp. 127-128 참조) 각각에서의 左측(1)을 뜻하고, “大體系”에 있어서는 연속(1)과 연속(2)를 “따로 따로” 보았을 때의 “병치적”(불연속적) 同形 즉 “ ${}_1F \leftrightarrow {}_1M$ ”  $\leftrightarrow$  “ ${}_2F \leftrightarrow {}_2M$ ”와 그 “外形은 同一”하나 그 “實質內容이 同一하지 않은”, 즉

회고적/불연속적( $\uparrow$ ) 同形과 異(逆)方向의 “연속(1)적” 同形 즉: “ ${}_1F \leftrightarrow {}_1M$ ”  $\leftrightarrow$  “ ${}_2F \leftrightarrow {}_2M$ ”  
 $\begin{matrix} 1 \rightarrow 2 & & 1 \leftarrow 2 \\ (1) & & (2) \end{matrix}$

를 말한다(\*앞 p. 131 참조).

2) 구체적 단계: 위 “佛語의 부사와 형용사의 부사화의 예와 그 정리”항과 같음.

韓語의 “명사화”/“형용사화”(관형화)의 同形에서의 “피조동”(연결/주관성/중속절/내부적 명사화 어미)과 “조동”(종결/객관성/주절/외부적 명사화 어미)의 “잠재적 단계”와 “구체적 단계”의 분석-:

1) 잠재적 단계: 피조동/조동” 어미 구분의 첫째 유형의 예로서는 F(不完全 명사형<連結적> 명사화 요소: “...(어느)것...”; “...(이·그·저)것...”; “...(무)엇...”, 등/不完全 冠形(詞)형<終結적> 관형화요소: “...(아)느”; “...(무)슨”; “...(어)떤”; “...(이·그·저)런”, 등)와 M(1·2인칭 대명사 및 주어·목적어(專用의) 格조사: “...나·너...”; “...에(께)서·이<가>·을<를>...”/3인칭 대명사 및 여격·(주어·목적어 格 이외에 특수한 어휘성 의미를 갖는) 특수조사: “...그”; “...에게(께)·이<가>·을<를>·도·는·만”, 등)을 들 수 있고,

둘째 유형의 예로서는 F(“것” 형 “명사형” $\langle$ 1連結적 $\rangle$ 지시사/-“ㄴ형” “冠形형” $\langle$ 1終結적 $\rangle$ 지시사)와 M(“명사형” $\langle$ 2連結적 $\rangle$ 피지시사: 형용사/동사(먹<는> 것)/조용하<ㄴ> 것 등)/“冠形형” $\langle$ 2終結적 $\rangle$ 피지시사: 형용사/동사(먹<는>)/조용하<ㄴ>)의 예를 들 수 있다. 이것을 앞서의 예가 따라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(\*위 p. 140: “韓語의 잠재적(분석적/연속적)조직” 및 \*위 p. 126 도표: “일반형태론(2)” 참조):

(1) F(위 1連結적 지시사/위 2終結적 지시사)와 M(위 1終結적 피지시사/위 2終結的 피지시사)의 ‘연속적(형태적) 同形’:

\*註: 이것은 곧 “ ${}_1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것}\dots) \leftrightarrow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나} \cdot \text{너} \dots; \dots\text{이}\langle\text{가}\rangle \cdot \text{을}\langle\text{를}\rangle\dots, \text{등}) \xrightarrow[2]{1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: } \dots\langle\text{어}\text{느} \cdot \text{무}\text{슨} \cdot \text{어}\text{떤} \cdot \text{이}\text{런}\rangle, \text{등}) \xrightarrow[1]{2}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중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그}; \dots\text{에}\text{게}\langle\text{께}\rangle); \dots\langle\text{도} \cdot \text{는} \cdot \text{만}\rangle, \text{등})$ ”라고 요약될 수 있다.  
(2) 즉 ‘ ${}_1\text{연속적}$ ’ 同形이다(\*주의: 左측(1)/右측(2)에 대한 설명은 앞 p.148의 佛語의 “잠재적 단계”와 모두 같음).

(2) 위(1)의 F와 M의 同形과 ‘異(逆)方向의 同形’:

\*註: “ ${}_1F(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ㄴ}) \leftrightarrow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중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떡}) \xrightarrow[2]{1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것}\dots) \leftrightarrow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떡}\dots)$ ”라고 요약될 수 있다.  
(1)  
(2)

(3)  $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것}\dots/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ㄴ})$ 와  $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떡}\dots/*\text{위 } {}_2\text{중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떡})$ 의 同形:

\*註: 이것은 곧 위(1)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: “ ${}_1F({}_1\text{연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것}\dots) \leftrightarrow {}_1M(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떡}\dots) \xrightarrow[2]{1} {}_2F({}_1\text{종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ㄴ}) \leftrightarrow {}_2M({}_2\text{중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떡})$ ”. 즉  
(1)  
(2)  
F와 M의 ‘불연속적(병치적)’ 同形이다.

\*위의 종합설명: \*앞 p.148의 佛語의 “잠재적 단계”와 그 골자는 같음.

2) 구체적 단계: 이 단계는 바로 위 1) “잠재적 단계”의 “(1), (2), (3)” 각각을 모두 “不連續化”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(\*앞 p.132 참조).

(1) 바로 위 “잠재적 단계(小體系)의 (3)”의 同形的 예에서, 그것을 不連續化시킨,  $F(\text{관형적}\langle {}_1\text{종결적}\rangle \text{ 지시사: } \dots\text{떡}/\text{명사화적}\langle {}_1\text{연결적}\rangle \text{ 지시사: } \dots\text{떡}\dots)$ 와  $M(\text{관형적}\langle {}_2\text{중결적}\rangle \text{ 피지시사: } \dots\text{ㄴ}/\text{명사화적}\langle {}_2\text{연결적}\rangle \text{ 피지시사: } \dots\text{것}\dots)$ 의 ‘불연속/의미(1)/(1최대)’을 내용으로 하는 ‘ ${}_1\text{연속적 同形}$ ’:

\*註: 이것은 곧 “ ${}_1F(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떡}) =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중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ㄴ}) \xrightarrow[2]{1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: } \dots\text{떡}\dots) =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: } \dots\text{것}\dots)$ ”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
(1)  
(2)  
(\*주의: 左측(1)/右측(2)에 대한 설명은 앞 pp.145-146의 韓語의 “잠재적 단계”와 모두 같음).

(2) 위(1)의 F와 M의 同形과 異(逆)方向의 同形:

\*註: 이 同形은, 바로 위 “잠재적 단계(小體系)의 (2)”의 同形的 예에서, 그것을 不連續化시킨,  $F(*\text{위 } \langle {}_1\text{연결적}\rangle \text{ 지시사: } \dots\text{떡}\dots/*\text{위 } \langle {}_1\text{종결적}\rangle \text{ 지시사: } \dots\text{떡})$ 와  $M(*\text{위 } \langle {}_2\text{연결적}\rangle \text{ 피지시사: } \dots\text{것}\dots/*\text{위 } \langle {}_2\text{중결적}\rangle \text{ 피지시사: } \dots\text{ㄴ})$ 의 ‘불연속/의미(2)/(2최대)’를 내용으로 하는 ‘ ${}_2\text{연속적 同形}$ ’이다. 즉

$${}_1F({}_1\text{연결적 지시사 : ...떡...}) = {}_1M(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 : ...것...}) \xrightarrow[1]{2} {}_2F({}_1\text{종결적 지시사 : ...떡...})$$

$$= {}_2M({}_2\text{종결적 피지시사 : ...ㄴ...})$$
 (1)

즉 F(3인칭 대명사 및 여격·특수조사형 <1종결적>지시사 : ...그 ; ...에게<께> ; ...도<는·만>, 등/1·2인칭 대명사 및 주어·목적어 격형 <1연결적> 지시사 : ...나<너>... ; ...이<가>·을<를>... ; 등)와 M(관형형 <2종결적>피지시사 : ...ㄴ/명사화 어미형 <2연결적>피지시사 : ...것...)의 ‘연속/의미(φ)/(최소)’를 내용으로 하는 ‘불연속적/並置적 同形’ : “ ${}_1F(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}) =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종결적 피지시사}) \xrightarrow[1]{2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}) =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})$ ”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.

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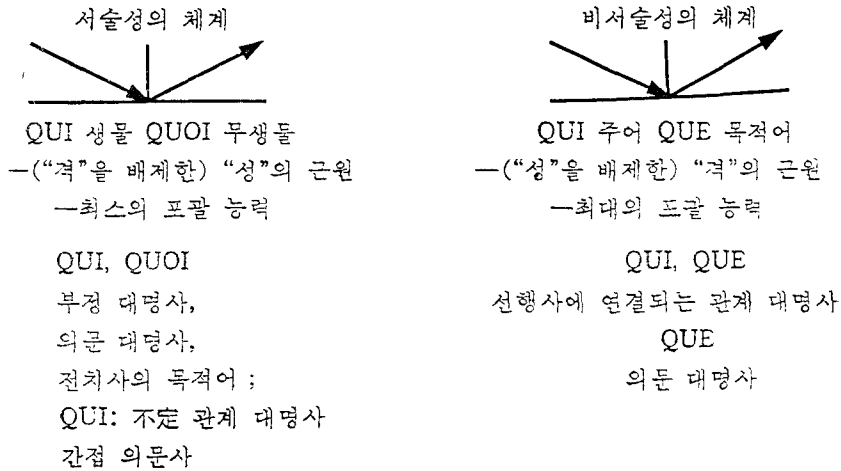
(3) \*앞 1) “잠재적 단계”의 (1) 또는 위 (1)을 “不連續化”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음.

즉 F(3인칭 대명사 및 여격·특수조사형 <1종결적>지시사 : ...그 ; ...에게<께> ; ...도<는·만>, 등/1·2인칭 대명사 및 주어·목적어 격형 <1연결적> 지시사 : ...나<너>... ; ...이<가>·을<를>... ; 등)와 M(관형형 <2종결적>피지시사 : ...ㄴ/명사화 어미형 <2연결적>피지시사 : ...것...)의 ‘연속/의미(φ)/(최소)’를 내용으로 하는 ‘불연속적/並置적 同形’ : “ ${}_1F(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}) =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종결적 피지시사}) \xrightarrow[1]{2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}) =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})$ ”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.

\*위의 종합설명 : 앞(p. 147/p. 148)의 韓/佛語의 “구체적 단계의 종합설명”과 설명방식이 같음.

佛語의 명사화/형용사화(관형화)에서의 “연결”(주관성/중속절/내부적 명사화 어미)과 “종결”(객관성/주절/외부적 명사화 어미)의 “구체적 단계”와 “잠재적 단계”의 분석- :

1) 구체적 단계 : Moignet는 佛語의 “qui/que/quoi”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 :



이것을 위에서 정리한 韓語의 “구체적 단계”에 대응 시켜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(\*QUI/QUE/QUOI의 굵은 부분은 記號의으로 ‘상대적인 크기’를 표시함).

(1) \*뒤(p. 155) 韓/佛語의 “잠재적 단계(小體系)의 (3)”의 同形을 不連續化시킨, F(1종결적<동사형> 지시사 ; ...mange/1연결적<동사형> 지시사 ; ...mange...)와 M(2종결적<관계대명사형> 피지시사 ; ...**QUE**/2연결적<관계대명사형> 피지시사 ; ...**QUI**...)의 ‘불연속/의미(1)/1 최대’를 내용으로 하는 ‘1연속적 同形’ :

\*註: 이것은 곧 “ ${}_1F(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}) =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종결적 피지시사}) \xrightarrow[1]{2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}) =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})$ ”라고 요약될 수 있다(\*주의: 左측(1)/右측(2)에 대한

(2) 설명은 앞 p. 147/p. 148의 佛語/韓語의 “구체적 단계”와 모두 같음).

(2) 위 (1)의 F와 M의 同形과 異(逆)方向의 同形:

\*註: 이 同形은(\*뒤 p. 155) 韓/佛語의 “잠재적 단계(小體系)의 (3)”의 同形을 不連續化시킨,  $F({}_1\text{연결적}<\text{동사형}> \text{지시사}; \dots\text{mange}\dots/{}_1\text{종결적}<\text{동사형}> \text{지시사}; \dots\text{mange})$ 와  $M({}_2\text{연결적}<\text{관계대명사형}> \text{피지시사}; \dots\text{QUI}\dots/{}_2\text{종결적}<\text{관계대명사형}> \text{피지시사}; \dots\text{QUE})$ 의 ‘불연속/의미(2)/(2)최대)’를 내용으로 하는 ‘연속적 同形’이다. 즉:

“ ${}_1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}) =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}) \xrightarrow[1]{2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}) =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종결적 피지시사})$ ”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.

(2) (3) \*위 (1) 또는 \*위 (1)/(2)에 적힌 韓/佛語의 “잠재적 단계(小體系)의 (1)”을 “不連續化”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. 즉  $F(\text{격적}<\text{관계 대명사형}>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}; \dots\text{QUE}/\text{격적}<\text{관계대명사형}>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}; \dots\text{QUI}\dots)$ 와  $M(\text{성적}<\text{의문대명사형}> {}_2\text{종결적 피지시사}; \dots\text{QUOI}/\text{성적}<\text{의문대명사형}>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}; \dots\text{QUI}\dots)$ 의 ‘연속/의미(φ)/최소’를 ‘내용으로 하는 ‘불연속적/並置적 同形’: “ ${}_1F(*\text{위 } {}_1\text{종결적 지시사}) = {}_1M(*\text{위 } {}_2\text{종결적 피지시사}) \xrightarrow[1]{2} {}_2F(*\text{위 } {}_1\text{연결적 지시사}) = {}_2M(*\text{위 } {}_2\text{연결적 피지시사})$ ”, 와 같이 요약된다.

\*위의 종합설명: 위(\*앞 p. 147/p. 148)의 韓/佛語의 “구체적 단계의 종합설명”과 설명방식이 같음.

## 2) 잠재적 단계:

위(\*앞 pp. 145-146/pp. 147-148)의 韓/佛語의 “잠재적 단계(小體系)”와 설명방식이 같음; 또 뒤 結論(pp. 154-155) 참조.

\*위의 종합설명: 위(\*앞 p. 148/p. 149)의 韓/佛語의 “잠재적 단계의 종합설명”과 설명방식을 같이 함.

## 결 론

“形態(F)와 意味(M)의 同形적, 즉 非恣意的 分析理論”에 토대를 둔 韓·佛 두 언어의 “名詞化(連結化/終結化)”라는 同形,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佛語의 形容詞적 副詞(構文)/形容詞의 副詞化(構文) 및 (QUI/QUE/QUOI)(관계)代名詞(構文)과 그에 대응하는 韓語의 連結語尾(構文)/終結語尾(構文) 및 名詞化(構文)/冠形化(構文)에 관하여 앞에서 파악·설명한 바를 다시 간추려서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:

(1) 잠 재 적 단 계

\*주의. "... (○)..." : 연결적(오소) / "... (○)..." : 종결적(오소).

韓語: 連結語尾(構文)/終結語尾(構文)

\*예문: "(밥줍머)게 (조용해)라!", "(내가 아까 보)니까 (그사람 가디)라"/"(저리가)게!"; "(가디)니까?"

小

(1) \*同形: "...머께..."; "...보니까..."/"...가게!"; "...가디니까?"; "...가디니까?"; "...가디니까?"; "...가게..."; "...니까.../증결어미: ...게, ...니까)와 M(연결적 동사: ...머.../종결적 동사: ...가)의 '1연속적 同形':

"<sub>1</sub>F(연결어미형 지시사: ...게.../...니까...) ↔ <sub>1</sub>M(연결적 피지시사: ...머.../...보...) ↔ <sub>2</sub>F(종결어미형 지시사: ...게.../...니까) ↔ <sub>2</sub>M(종결적 피지시사: ...가.../...가<디>)"

적 피지시사: ...가.../...가<디>";

(2) \*同形: "...가게!"; "...가디니까?"/"...머께..."; "...보니까..."; "...가게!"; "...가게!"; "...니까.../연결어미: ...게...; ...니까..."; ...와 M(종결적 동사: ...가/연결적 동사: ...머...; ...보...의 '2연속적 同形':

"<sub>1</sub>F(종결어미형 지시사: ...게.../...니까...) ↔ <sub>1</sub>M(종결적 피지시사: ...가.../...가<디>) ↔ <sub>2</sub>F(연결어미형 지시사: ...게.../...니까...) ↔ <sub>2</sub>M(종결적 피지시사: ...머.../...보...)"

體

(연결적 피지시사: ...머.../...보...)",

(3) \*同形: "...머께..."; "...보니까..."/"...조용해라!"; "...가디라"에서, F(연결어미: ...게...; ...니까.../종결어미: ...라)와 M(연결적 동사: ...머...; ...보.../종결적 형용사 및 동사: ...조용해; ...가)의 '불연속적(병치적/의미적) 同形':

"<sub>1</sub>F(연결어미형 지시사: ...게.../...니까.../...아, 게, 지, 고...)" ↔ <sub>1</sub>M(연결적 피지시사: ...머.../...보...)" ↔ <sub>2</sub>F(종결어미형 지시사: ...가.../...가<디>) ↔ <sub>2</sub>M(종결적 피지시사: ...아.../...고...)"

(1)

系

佛語: 形容詞的 副詞(構文)/形容詞的 副詞化(構文)

\*예문: "Pierre écoute attentif"/"Pierre écoute attentivement"/"Pierre attend vainement"

(1) 同形: "...attentif φ..."/"...écoute φ"에서, F(연결어미: ...φ.../종결어미: ...φ)와 M(연결적 형용사: ...attentif.../종결적 동사: ...écoute)의 '1연속적 同形':

"<sub>1</sub>F(연결어미적 지시사: ...φ...)" ↔ <sub>1</sub>M(연결적 피지시사: ...attentif...)" ↔ <sub>2</sub>F(종결어미적 지시사: ...φ...)" ↔ <sub>2</sub>M(종결적 피지시사: ...écoute)"

(2)

(2) 同形: "...écoute φ"/"...attentivement..."에서, F(종결어미: ...φ/연결어미: ...ment...)와 M(종결적 동사: ...écoute/연결적 형용사: ...attentive...)의 '2연속적 同形':

"<sub>1</sub>F(종결어미적 지시사: ...φ...)" ↔ <sub>1</sub>M(종결적 피지시사: ...écoute)" ↔ <sub>2</sub>F(연결어미적 지시사: ...ment...)" ↔ <sub>2</sub>M(연결적 피지시사: ...attentive...)"

(1)

(2)

(3) \*同形. "...vaine ment..."/"...attend φ"에서, F(연결어미: ...ment.../종결어미: ...φ)와 M(연결적 형용사: ...vaine.../종결적 동사: ...attend)의 '불연속적(병치적/의미적) 同形':

"<sub>1</sub>F(연결어미적 지시사: ...ment...)" ↔ <sub>1</sub>M(연결적 피지시사: ...vaine...)" ↔ <sub>2</sub>F(종결어미적 지시사: ...φ...)" ↔ <sub>2</sub>M(종결적 피지시사: ...attend...)"

(1)

(2)





“ ${}_1F$ (종결적 지시사 : ...가 <ㅁ>) =  ${}_1M$ (종결어미형 피지시사 : ... $\phi$ )”  
 $\rightarrow$  “ ${}_2F$ (연결적 지시사 : ...면..., ...보...) =  ${}_2M$ (연결어미형 피지시사 : ... $\phi$ )”  
 (1)  
 $\rightarrow$  “ ${}_3F$ (연결적 지시사 : ...면..., ...보...) =  ${}_3M$ (연결어미형 피지시사 : ... $\phi$ )”  
 (2)

“ ${}_1F$ (종결적 지시사 : ...가, ...<ㅁ>) =  ${}_1M$ (종결어미형 피지시사 : ... $\phi$ )”  
 (1)  
 ... $\phi$ ”  
 $\rightarrow$  “ ${}_2F$ (연결적 지시사 : ...면..., ...보...) =  ${}_2M$ (연결어미형 피지시사 : ... $\phi$ )”  
 (2)

“연속적으로”/“하나로”(→)보아진, 위 韓/佛語 각각의 “小體系”의 “小體系 (1) 및 (2)” 즉 (3)과의 “연속적”(→) 同形.

(1) 小 體 系

韓語 : 名詞化(構文)/形容詞(冠形)化(構文)

\*예 名詞化(連結적/명사적)어미 : ...것.../冠形(終結적/동사적)어미 : ... $\sim$ /(連結적) 1·2인칭 대명사 및 주격·목적격형 조사(지시사) : ...나..., ...너..., ...에(께)지..., ...이(가)...; 을(를).../終結적) 3인칭 대명사, 여격 및 특수조사(지시사) : ...그; ...에게(께); ...이(가); ...을(를); ...도; ...는; ...만

(1) \*同形 : “...<어는>것...”; “...<이> 그 <저>것...”; “...<무>엇...”; “...<누>구.../“...어(는)”; “...<무>는”; “...<어>면”; “...<이> 그 <저>면”; “...나 <너>”; “...<에(께)>서 <이(가)> <을(를)>.../“...그”; “...<에(께)> <이(가)> <을(를)> <도> <는> <만>”에서, F(명사화어미 : ...것.../관형형어미 : ... $\sim$ )와 M(1·2인칭 대명사 및 주어·목적어 격조사 : ...나 <너>...; ...이(가) <을(를)>...등/3인칭 대명사 및 여격·특수조사 : ...그; ...<에(께)>...; ...<도(는)> <만> 등)의 ‘연속적 同形’ : “ ${}_1F$ (연결적·명사형 지시사 : ...것...)  $\rightarrow$   ${}_1M$ (연결적·1·2인칭 대명사 <어는>...; ...<이> 그 <너>...; ...<이(가)> <을(를)>...; ...<무>는, ...<어>면, ...<이런>)  $\rightarrow$   ${}_2M$ (종결적·3인칭 대명사 <여격·특수조사형 피지시사 : ...그, ...<에게(께)>...; ...<도> <는> <만>, 등)”;

(2) \*同形 : “...<어는>것.../“...<이> 그 <너>...; ...<이(가)> <을(를)>...; ...<무>는, ...<어>면, ...<이런>)  $\rightarrow$   ${}_2M$ (종결적·3인칭 대명사 <여격·특수조사형 피지시사 : ...그, ...<에게(께)>...; ...<도> <는> <만>, 등)”;

(2) \*同形 : “...<어는>것.../“...<이> 그 <너>...; ...<이(가)> <을(를)>...; ...<무>는, ...<어>면, ...<이런>)  $\rightarrow$   ${}_2M$ (종결적·3인칭 대명사 <여격·특수조사형 피지시사 : ...그, ...<에게(께)>...; ...<도> <는> <만>, 등)”;

佛語 : (QUI/QUE/QUOI) 接續詞(構文)

\*예 : 連結, 생물·敘述·性적 지시사 : ...QUI.../終結·무생물·시술·성적 지시사 : ...QUOI/連結·비시술·주어·격적 지시사 : ...QUI.../終結·非敘述·목적어·격적 지시사 : ...QUE  
 \*주의 : 韻은 活字는 記號論적 ‘同形’의 順序를 나타냄.

(1) \*同形 : 위 “예”의 “...QUI...”, “...QUOI.../“...QUI...”; “...QUE”에서, F(연결·성적<의문 대명사형>지시사 : ...QUI.../종결·성적<의문대명사형>지시사 : ...QUOI)와 M(연결·격적<관계대명사형>지시사 : ...QUI.../종결·격적<관계대명사형>지시사 : ...QUE)의 ‘연속적 同形’.

“ ${}_1F$ (연결·성<의문대명사형> 지시사 : ...QUI...)  $\rightarrow$   ${}_1M$ (연결·격<관계대명사>형 피지시사 : ...QUI...)”  $\rightarrow$  “ ${}_2F$ (종결·성<의문대명사>형 지시사 : ...QUOI...)  $\rightarrow$   ${}_2M$ (종결·격<관계대명사>형 피지시사 : ...QUE)”;

(2) \*同形 : 위의 “종결·격 <관계대명사>적 지시사 : ...QUE(je